

사후의 삶



사후의 삶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요기 14:14

죽음 이후의 삶 가능성보다 더 강렬하고 보편적인 주제는 없습니다. 이는 죽음 자체가 너무도 보편적이며, 모든 이성적인 인간이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인간의 예지력으로 볼 때 죽음은 모든 인류의 구성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지 여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질문입니다.

역대 모든 시대의 남녀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절망과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다양한 철학을 창안해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비극적으로 현실인 것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고 믿으려 했고, 죽음이 적 rather than 친구이며, 인간이 더 고귀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과 일반인들 모두 반복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죽을 때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보다 더 살아 있는가? 수천 년 전 선지자 욥은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 (욥기 14:14). 이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슬퍼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신해 말한 것이며, 모든 인류와 함께 확실한 죽음의 도래를 두려워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질문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까?”에 대한 답변에 개인적이고 절실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삶에 지친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 지쳐서, 그런 조건에서 삶이 가치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느니라"라고 썼습니다(야고보서 5:11). 요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극도로 혹독한 재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 떼, 소 떼, 가족 모두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온몸을 덮는 혐오스러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그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요브 2:9)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무덤에 숨겨 주시고, 당신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비밀로

지켜 주시며, 정한 때를 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욥 14:13

하나님께 죽음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후, 욥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욥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말은 신적 영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욥이 "사람이 죽으면 더 살아 있을까요?"라고 묻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 죽으면 단순히 다른 방으로 옮겨갔거나, 천국으로 갔거나, 고통의 장소로 갔다는 의미인가요?"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묻은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요?"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위대한 근본 진리 중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즉, 죽음 이후의 생명은 죽은 자들의 부활, 즉 깨어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희망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강력한 권능으로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만약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허용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한 날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기다리리니, 내 변화(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올 때까지. 네가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니, 네 손으로 지은 일을 향하여 네가 갈망하리라.” 욥기 14:14,15

부활의 희망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정하신 때에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죽음 이후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부활의 희망은 신약성경에서 명확히 제시되며, 위로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왔느니라” (고린도전서 15:21)라고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두 “사람”은 아담과 예수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자신과 후손에게 사망의 벌을 초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해방되도록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기록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6:23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확신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언급하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18). 이는 단순히 부활이 없다면,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죽음으로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혼란이 생길까요?

성경이 죽음 이후의 생명의 희망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이 혼란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17). 나중에

사탄은 뱀을 통해 이브에게 이 말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정원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창세기 3:1). 이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며, 불순종의 벌로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포함했습니다. 2,3절

그때 사탄은 이브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3:4). 이는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탄은 하나님이 불순종의 벌로 죽음을 내리셨다는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곧 그 노력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종족이 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을 통해 '죽음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며, 실제로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수록, 그는 어머니 이브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며,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진실을 말한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44

사탄은 단순히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즉, 사탄은 첫 번째 거짓말을 낳았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어 모든 민족과 종교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죽음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진리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었습니다.

“독립된 실체” 거짓말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났듯이 인간의 몸은 죽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에 대해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 몸 안에 몸과 분리된 어떤 것이 존재하며, 이 존재는 몸이 죽을 때 몸에서 벗어나 계속 살아간다는 생각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영적 자유주의()

단체에서는 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을 '불멸의 영혼'이라고 지칭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견해를 믿었습니다. 이 견해는 나중에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사도들이 죽어서 잠들자 이교도 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교회에 도입되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지만, 인간 안에 죽지 않는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죽음은 없다는 이 이론은 모든 이교도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 시대에 이 믿음이 이교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솔로몬은 이 오류를 진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람의 자식에게 닥치는 것은 짐승에게도 닥친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일이 닥친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것도 죽는다. 그들은 모두 한 숨을 쉬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헛되니라. 모두 한 곳으로 가며, 모두 흙에서 나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누가(또는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전도서 3:19-21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분명히 밝히시는가! 그는 죽음에서 사람과 짐승이 같다고, 그들이 모두 한 숨, 즉 21절에서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된 ‘영’을 공유한다고 확인하신다. 이처럼 진리를 밝히신 후, 그는 누가 달리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분명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달리 믿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따라 죽음은 없다고 믿었으며, 몸이 죽어도 “영혼”이 위로 올라가 계속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에서 인간과 짐승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점은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낮은 동물들에게는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은 없다

"불멸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며, 성경은 인간 몸 안에 "독립된 실체"가 존재해 몸이 죽을 때 다른 곳으로 도망쳐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사용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 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영혼"은 단순히 살아 있는 존재나 생물체를 의미하며, 이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생명 호흡과 유기체(또는 몸)의 결합으로 탄생합니다. 몸은 영혼이 아닙니다. 생명 호흡은 불멸의 영혼이 아닙니다. 신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생명 호흡이 몸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두 요소의 결합이 "살아 있는 영혼"을 이룹니다.

솔로몬은 인간과 짐승이 모두 같은 숨을 가졌다고 말했고, 그는 옳았습니다. 홍수 때 인간과 하등 동물에 대해 기록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육체,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 곧 코에 생명의 숨결이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으니, 죽었더라." 창세기 7:21,22

짐승들도 인간과 같은 “생명의 숨결”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살아 있는 영혼”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는 성경의 번역 불일치로 인해 일반 독자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4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그 종류대로 살아 있는 생물을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리 되었더라.”

이 텍스트에서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7에서 아담을 가리킬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네페쉬'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물'과 '영혼'은 모두 히브리어 '네펠쉬'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번역자들이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인간과 짐승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하등 동물에 대해 “생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간에 대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는다”고 쓴 것은 당연합니다.

아담이 죽을 때 그의 몸은 먼지로 돌아갔습니다—“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19). 하나님이 주신 생명권은 하나님이 그의 코에 불어넣은 숨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며 이 생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먼지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전도서 12:7

이 텍스트에 명시된 단순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이라는 단어의 오해로 인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생명력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가리킵니다.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28

이 본문은 사람이 죽을 때 의식 있는 존재가 몸에서 벗어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혀 암시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돌아간다"라는 단어는 그런 해석을 배제합니다. 몸은 먼지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갑니다. 만약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별개의 실체라면, 그것은 의식적인 실체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일시적으로 인간 몸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론인가요!

그러나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 살아있는 영혼이나 존재에 대한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몸과 숨이 원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남는다. 살아있는 영혼이나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었고, 죽음은 죄의 벌이다. 에스겔 18:4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고 선언한다.

죽음이 '잠'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라자로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실 때 강조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라자로는 잠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연스러운 잠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자로는 죽었다.” 요한복음 11:11-14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교리 중 하나를 밝히셨습니다. 라자로는 죽었지만, 동시에 “잠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순종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이는 생명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이 생명의 소멸은 영원했을 것이나,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구원자로 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6; 디모데전서 2:3-6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육체', 즉 인간성을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51). 이로써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선고된 죽음의 판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제공된 구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일시적인 생명 상실을 '잠'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잠든 자들은 의식이 없으며,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전도서 9:5). 잠든 자들은 깨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죽음 속에서 "잠든" 자들도 깨어날 것이며,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라자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니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1:11). 따라서 죽음 속에서 잠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구의 새 날 아침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은 밤을 지내지만, 기쁨은 아침에 온다"고 읽습니다. 시편 30:5

마르다를 위로하신 예수

예수와 베다니의 작은 가족—마르타, 마리아, 라자로—는 특별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라자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와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라자로의 병에 대해 예수께 소식을 전했지만, 그는 즉시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날을 기다리신 후, 라자로가 죽었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그들의 집으로 다가오시자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형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1) 마르다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는 예수께서 그녀를 위로하기에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녀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마르타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마르타야, 네 형제는 정말 죽지 않았어. 그는 단지 외적인 겹질을 벗었을 뿐이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라자로가 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마르타에게 라자로의 “영혼”이 근처에 떠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마르타야, 죽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라자로를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마르타에게 그녀의 형제가 이제까지보다 더 살아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타를 위로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라자로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네 형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려면 생명을 되찾아야 했고, 예수님은 그의 여동생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네 형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죽음의 잠에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께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 그녀의 형제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시라고 요청하실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2-24절

마르다는 모든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 라자로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약에 기록된 약속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또한 일반적인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이 경우 “날”이라는 단어는 시대나 시대를 의미하며,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의 마지막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다양한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전에는 조상 시대와 유대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이후에는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시대인 마지막 날에 예수와 협력할 자들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준비의 시대였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계획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즉 마지막 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와 모든 죽은 자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께서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인지 물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즉각적인 의도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5,26절)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깨우시고 그 때에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주신 이 답변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생명을 받는 두 부류를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지금 믿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들을 죽음에서 깨우치실 것이라고 확약하셨습니다. 둘째는 부활 때 깨우침을 받고 그분 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26절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부활에 대해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시킨 후,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26, 27절) 마르다는 그리스도, 즉 약속된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을 통해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질 것임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라자로의 부활

마르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타처럼 마리아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제 형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슬픔과 큰 상실의 장면에 감동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분은 라자로가 묻힌 무덤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무덤 옆에 서서 예수님은 입구에 있는 돌을 굴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예수님이 형제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제 의심하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9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죽은 자들을 위해 신적 권능이 결국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적 권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사흘 동안 죽었든 수천 년 동안 죽었든 차이가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생명을 되살리시는 데에 풍족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열린 무덤 앞에 서서 적절한 기도를 드린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라자로야, 나오라.” (43절) 이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라자로에 대해 그가 천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자루스는 하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옥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영원한 고문의 심연으로 갔다가 고문에서 풀려났다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문의 심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예수께서 “라자로야, 나오라 . . . 죽은 자가 나왔도다”라고 외치자, 죽은 라자로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라자로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덤 옷에서 풀려난 라자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전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그는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라자로였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했고, 그의 가족도 그를 되찾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과거에 예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때가 오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올 것이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의 부활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의 부활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8,29. 여기서 우리는

라자로가 무덤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일반 부활의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름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부활에 두 가지 일반적인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선한 일을 한 자들과 악한 일을 한 자들, 또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24절에서 현재 세대의 믿는 자들로 언급됩니다. 이들에 대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며,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믿음의 근거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으며,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을 입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자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깨어남은 세상의 천년 심판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7:31; 베드로후서 3:8; 요한계시록 20:6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크리시스*"이며, "심판"으로 번역됩니다. 현재 생명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관련된 모든 문제를 완전히 깨달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제공된 생명의 선물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모든 인류의 일을 통치할 때 적용될 왕국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인간 삶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기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23

이 시대의 믿는 자들 중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자격을 입증한 자들은 부활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로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2:7) 불멸은 따라서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통받고 죽기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살며 다스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들은 미래의 심판 날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공동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2,3; 계시록 3:21; 5:10

그때 믿지 않는 세상은 믿을 기회를 주어질 것이며, 죽은 자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이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잃어버린 인간

본성의 완전함을 회복할 것이며, 영원히 땅에서 인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4

이것은 신의 계획의 행복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어 가져온 죄와 죽음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긴 슬픔의 기간 동안 죽은 모든 이들이 깨어나 하나님 법을 순종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개인적인 기회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그러나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받아야 하며, 이는 미래의 심판 날에 죽음에서 깨어날 때 받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희망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은 이를 상징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인용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서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라. 세상도 견고히 세워져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리라.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소리치라. 들판이 기뻐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라. 그러면 모든 숲의 나무들이 주 앞에서 기뻐하리라. . . .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그는 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시편 96:10-13

실제로, 죽음 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제시된 위대한 희망,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의 희망입니다.